出願 상위企業 特別管理 필요

生産性本部 調査結果

特許行政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出願실적이 높은 기업들은 特別管理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出願성향분석에 의거한 審査인력충원과 局·課·審査官別 審査적체정도를 파악하여 類似심사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可變的 업무分掌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국생산성분부(KPC)가 特許廳의 위탁을 받아 조사 작성한 「工業所有權행정업무처리의 改善方案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出願에 대한 분류작업은 審査官에 대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審査적체를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出願상위기업을 特別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出願상위 1백대기업의 出願점유율은 국내법인出願의 70.9%를 차지하고, 전체出願의 30.7%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해 國際特許分類(IPC)를 기재토록하고 기업별로 코드(Cord)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면 분류 업무량은 현재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전자변이 動物 特許여부 논란

EPO와 美國特許廳 特許法 相反 따라

최근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유전자변이에 의한 動·植物이 속속 출현하게 됨에 따라 이에 特許를 許與하는 문제가 선진각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特許廳 및 유전공학 연구조합에 따르면 유럽特許廳(EPO) 이 최근 美國 하버드대학이 신청한 유전자변이에 의한 쥐(Transgenic Mouse)에 대한 特許를 拒絶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유럽에서 特許를 拒絶당한 유전자변이 쥐는 美國에서 特許를 획득한 바 있는 것으로 현재 동물에 대해 特許를 허여한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美國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國은 「태양아래 인간에 의해 제조된 어떠한 것이라도 포함하여 보호한다」는 特許法 취지에 따라 지난 87년 유전공학에 의해 생산된 동물형태의 새로운 생물에 特許를 허여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動物을 特許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유전자변이 식물에 대해서는 特許를 내주고 있으나, 動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조상품 團束 강화

대량 流通業者 구속 방침

僞造商品제조 및 판매가 知能化되고 판매망이 점조직화되어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僞造商品의 제조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特許廳에 따르면 올해 僞造商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계몽활동의 결과 僞造商品업계가 위축되고 유통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이들 제조 판매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화되는 등 점차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僞造商品업계의 제조 판매방법이 知能化 점조직화되어감에 따라 特許廳은 내년부터는 검찰경찰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대량유통업자는 모두 구속키로 했다. 〈♣〉